



# 안전 권고문



## 농기계 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농촌을 만듭시다.

### 사고 사례

- 2016년 경남지역 농기계사고는 4월까지 48건에 5명 사망, 62명 부상
- 1월 하동군과 거창군에서 자동차 도로 운행 중 자동차가 추돌하여 경운기 운전자 사망 2건
- 3월 하동군에서 운전자 자신이 몰던 경운기에 깔려 운전자 사망
- 5월 거창군에서 트랙터 조작 중 트랙터에 깔려 운전자 사망



### 사고 원인

- 운전자 운전미숙과 농로 비탈길과 급경사, 좁은 농로로 전복사고 많음
- ➡ 농민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사고대처 능력 부족

### 권고 사항

- 농기계도 자동차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
- 농기계는 일몰 후 운행 자제
- 농기계는 도로 상 운행 자제
- 농기계 안전반사지나 형광반사지 부착 당부

#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(요약)

농업기계 취급관리 부주의로 인한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내용을 숙지 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.

## 운전자의 “안전의식” 을 개선합니다.

- 농작업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에 적극적 참여
- 농업기계 취급자 자신 및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작업에 임함
- 도로 교통법규, 관계법령을 숙지하는 등 안전한 농작업을 위해 노력

## 올바른 취급법을 익힙시다.

- 취급설명서 숙지 : 구조, 조작법, 일일점검정비, 정기점검정비
- 취급설명서 보관 :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 → 의심나면 즉시 확인

## 작업에 알맞은 복장을 착용합니다.

- 몸에 착 붙는 작업복을 착용 [헐렁한 옷, 큰장갑은 사고를 유발]
- 작업화는 코가 단단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것 착용

## 자신을 과시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합니다.

- 주의해야 할 장소 : 교차로, 빗물 또는 비탈진 도로, 커브길, 포장출입구 등

※ 도로 주행시에는 경광등이나 반사경 부착으로 야간사고 방지

## 점검정비는 반드시 엔진을 끄고 합니다.

## 바쁘시더라도 반드시 휴식을 취합니다.

## 포장 · 도로등 주행 운전시에는 안전에 특히 유의합니다

# 농업기계 안전관리 요령

※ 농촌진흥청 자료(2016.6월)

## 1 안전운전을 위한 기본사항

- 농업기계 취급자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평소부터 안전의식을 갖고 작업에 임한다.
- 농업기계의 일상점검과 적절한 조작을 통하여 농작업을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주변 환경도 배려한다.
- 농업기계를 이용한 농작업을 시키기 위하여 고용할 경우 고용주로서 피고용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주변 환경에도 배려한다.
- 농업기계 운전자 및 고용주는 농작업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전의식을 높인다.
- 도로 교통법규 등 관계법령을 숙지하는 등 안전한 농작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## 2 농업기계를 운전하면 안되는 사람 [ 제한자 ]

- 음주자
-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 작업에 지장이 있는 자
- 병, 부상, 과로 등으로 정상적인 작업이 곤란한 자
- 임신 중이거나 해당 작업이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하여 기능장애 등 건강상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자
- 연소자
- 미숙련자(숙련 작업의 지도하에 실시하는 경우 제외)



<농업기계 운전제한>

## 3 농업기계를 취급할때 주의해야할 사항

## □ 주정차 및 정비할 때

- 주차 및 정차 시에는 안전조치를 철저히 한다.
  - 엔진을 정지하고 키를 뺀다.
  - 변속레버는 저속에 놓고 주차브레이크를 걸어 놓는다.
  - 경사지에서는 받침목을 고여 놓는다.
  - 도로변에 농기계를 정차할 때에는 비상점멸등을 켜둔다.
- 농업기계는 항상 안전한 상태에 놓고 정비 점검을 해야 한다.
  - 벨트나 체인, 탈곡장치, 경운날 등을 점검할 때는 반드시 엔진을 끄고 점검해야 한다.
  - 기체가 심하게 기울어진 상태 또는 작업기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밑에 들어가 점검할 때는 반드시 받침대를 설치해야 한다.
- 운전석 내부 및 주위는 청결히 한다.
  - 승하차는 승차용 계단과 손잡이를 이용한다.
  - 신발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청결히 하고 운전석 바닥에 공구, 음료수병 등을 두지 말아야 한다.



< 농작업 전후 점검·정비 >

## □ 농작업을 할 때

- 농기계의 올바른 취급방법을 익힌다.
  - 사용설명서를 숙지하고 작업 전에는 반드시 각부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으면 즉시 조치한 다음 작업을 시작한다.
- 농작업에 알맞은 복장을 착용한다.
  - 농작업을 할 때에는 농업기계에 두발이나 의류 등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각 작업에 적당한 복장과 작업모 및 사고방지에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한다.

- 헐렁한 옷이나 소매가 긴 옷을 입거나 장갑을 착용하고 농업기계를 다루지 않는다.
- 신발은 발에 꼭 맞고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안전화를 착용한다.
- 긴 머리카락은 작동하고 있는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머리손상을 입기 쉬우므로 뒤로 묶거나 모자 속으로 집어넣도록 한다.
- 보석류는 빼놓고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.

○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항상 신중한 자세로 작업한다.

- 나도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.
- 언제나 초보자라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농작업을 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지름길이다.



<작업에 적합한 복장 착용>

○ 이양작업 중 모매트는 주행을 정지한 다음 보급한다.

- 주행 중에 엉거주춤한 자세로 모매트를 보급할 경우 논 경반의 요철 또는 작업화에 묻어 있는 진흙과 물기에 의해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주의한다.

○ 농작업은 2시간마다 10~20분 정도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.

- 조급하게 일을 마치려고 서두르거나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. 2시간 정도 작업을 한 후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한다.

□ 운반 작업 또는 이동할 때

○ 농업기계에는 운전자 1명만 승차해야 한다.

- 경운기, 트랙터의 옆 좌석이나 트레일러에 사람을 태우고 도로를 이동할



<농작업 2시간 마다 휴식>

경우 운전자의 주의력을 저하시켜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.

○ 논두렁을 넘을 때에는 저속상태에서 직각방향으로 진행한다.

- 논두렁을 비스듬하게 넘을 경우 기계가 뒤집힐 수 있다. 작업기는 낮게 내리고 천천히 직각방향으로 넘어야 한다.



<운전자 외 탑승금지>

○ 후진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한다.

- 가급적 후진을 하지 않아야 하고, 후진을 할 경우에는 후방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엔진 회전수를 낮추고 저속으로 후진한다.

○ 동력경운기 조향클러치는 고속주행 중에 사용하지 않는다.

- 조향클러치 사용은 지극히 저속으로 진행하거나 농작업시 선회할 때만 사용하도록 한다.
- 고속으로 달리거나 내리막길에서 조향클러치를 사용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.

○ 도로주행 농기계는 등화장치를 부착하여 방어운전을 한다.

- 야간주행에서는 등화장치를 점등하고, 반사판, 반사썰 등으로 상대운전자에게 명확하게 눈에 띄게 함과 동시에 최대 폭이 멀리서도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.

○ 트랙터는 도로 주행시 독립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다.

- 도로에서 트랙터 독립브레이크를 사용하면 급회전으로 인하여 전복되거나 차량과 충돌로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.

○ 도로주행시에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킨다.

- 도로에서 선회를 할 때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, 야간에는 등화장치를 작동하여 방어운전을 한다.

- 교차로 통행시나 도로로 진입할 때에는 전후좌우를 충분히 살핀 다음 진행한다.



<교통법규 준수>

#### □ 농업기계 안전사고 대비

-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해당 작업에 위험성을 예측하고 대응책을 생각해 두는 습관을 가지도록 한다.
-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긴급사항 발생시에 연락체제를 확인함과 동시에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을 몸에 익히는 등 평소부터 사고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한다.
- 안전한 방법으로 여유를 가지고 작업에 임한다.

## 4 농업기계 운전할 때 등화장치 부착 필수

#### □ 등화장치 및 반사판

- 도로를 주행하는 농업기계는 반드시 방향지시등, 점멸등, 차폭등과 같은 등화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.
- 농업기계 부착된 등화장치와 반사판은 도로 주행시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보다 나은 정보제공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 된다.



<등화장치 및 반사판 부착>

#### □ 등화장치 설치 권고사항

- 농업기계에 부착된 등화장치는 도로 지면으로부터 최소한 0.9m 이상의 높이에 있어야 되고 3m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.

- 전조등은 규격에 맞는 두 개의 램프가 같은 높이에 붙어 있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농업기계의 중앙으로부터 동일한 간격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.
- 농업기계에는 작업등이 부착되어야 하며, 뒤쪽을 향해 있는 작업등은 도로를 주행중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농업기계 근처의 옆쪽이나 앞쪽은 사용하도록 한다.
- 2개의 붉은 후미등은 동일한 위치에 중앙으로부터 동일한 간격으로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.
- 작업폭이 특별히 넓은 농업기계(3.6m이상)의 경우에는 다른 차량이 측면에서 부딪히는 사고를 막기 위하여 비상등(경고등)이 있어야 하며, 주행중에는 2개의 램프가 동시에 1분에 60~85회 정도 깜박이어야 한다.
- 농업기계에는 방향지시등이 부착되어 있어야 된다.

## 5 기타 안전사항

### □ 연료취급

-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연료, 즉 휘발유, 경유, 등유는 위험물로서 취급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.
- 연료의 보관은 전용장소에 보관하고 보관 장소에는 유류전용 소화기를 준비하고 화기를 엄금하며 관계자 이외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걸어 놓는다.
- 흘러넘친 연료가 하천이나 주위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저장 장소 주위에 둑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상온에서도 기화하는 휘발유를 보관할 때에는 기화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항상 환기한다.
- 급유를 할 때에는 반드시 농업기계의 엔진을 정지시켜 식힌



상태에서 급유한다.

- 연료가 배관에서 새거나 주유시 넘치는 것에 주의하고 넘치거나 흐른 연료는 바로 닦아 내도록 한다.
- 연료 옆에는 불이나 불꽃이 일으키는 농업기계나 공구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정전기가 발생하기 쉬운 복장을 하지 않는다.
- 수시로 청소하여 주위의 불필요한 가연물질을 제거한다.
- 연료는 장기간 보관하면 변질되며 이런 연료를 사용하면 농업기계의 고장원인이 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.



<연료급유시 화기 주의>

#### □ 기타사항

- 운전석을 떠날 때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 후 주차브레이크를 걸고 키를 뺀다.
- 운전자 이외의 사람은 탑승하지 않는다.
- 밀폐된 장소에서 시동할 때는 환기가 잘되도록 조치 후 시동한다.
- 배터리는 화기에 주의하고 전해액이 피부이나 의복에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.